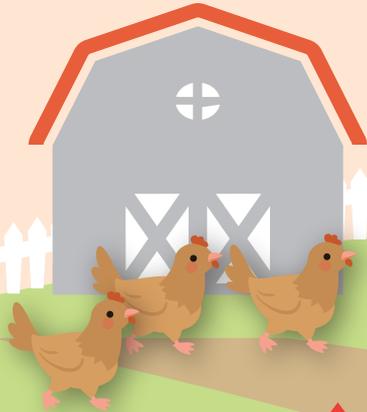


# 산란계

농업관측센터 [aglook.krei.re.kr](http://aglook.krei.re.kr)

축산관측은 한육우, 젓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,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. 돼지, 육계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(2,5,8,11월) 25일에 발표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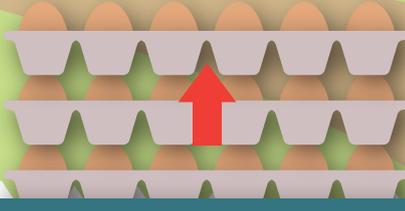
## 9월 계란 산지가격 1,250~1,350원/특란 10개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

종계입식 증가 ↑



계란 생산량 3.2% 증가 ↑



생산가담 신계군 증가




추석명절 수요 증가 ↑



가격 전년 대비 하락

### 과도한 병아리 입식 경쟁 지양 및 SI 방역 철저

※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#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5.6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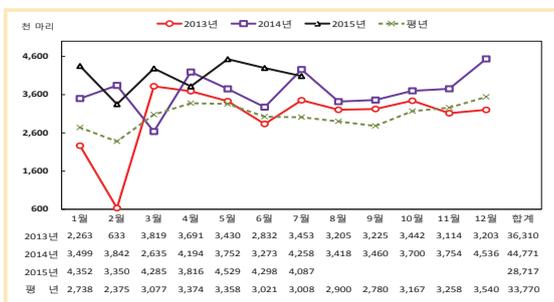


##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 가구수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「가축동향」

## 산란계 병아리 입식 동향



자료: 대한양계협회

##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

구분	9월	10월	11월
2015년	120.8	123.7	110.0
2014년	100.0	105.5	95.6
증감률(%)	20.8	17.3	15.2

주: 2014년 9월을 100으로 함.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전망치

##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 전망

단위: 만 마리

구분	9월	10월	11월
2015년	5,105	5,119	5,237
2014년	4,692	4,824	4,944
증감률(%)	4.6	6.1	5.9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추정치

## 산란계 마릿수 전망

단위: 만 마리

구분	9월	10월	11월
2015년	6,893	6,924	6,997
2014년	6,578	6,656	6,771
증감률(%)	5.6	4.0	3.4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추정치

## 산란계 사육 동향과 전망

###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

-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8.0% 증가한 6,791만 마리였으며,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6.9% 증가한 5,061만 마리였다.
-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3% 증가한 1,138가구였다.

### 2분기 산란 종계 및 실용계 입식 마릿수 증가

-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는 16만 8천 마리로 전년 대비 11.6%(평년 대비 20.0%) 증가하였으며,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12.7%(평년 대비 29.6%) 증가하였다.

### 9~1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전년 대비 상승

-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, 9~11월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전년 대비 17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9~11월 계란 생산 가담 신계군 증가 전망

- 6~8월 산란계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9.4% 증가하여, 9~11월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2015년 상반기 산란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월평균 410만 수(전년 대비 13.4% 증가)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### 9~11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 전망

- 산란 성계(노계) 도태는 증가한 반면, 산란 가담 신계군 및 산란계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4.6% 증가한 5,105만 마리로 전망된다.
-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 증가로 인해 9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5.6% 증가한 6,893만 마리로 전망된다.

# 계란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3.2% 증가 전망



## 계란 수급 동향 및 전망

### 9~11월 산란 성계(노계) 비중 감소 전망

- 7월 산란용 배합사료는 전년 동월 대비 13.4% 증가하였다.
- 7월 산란 전과 초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.1%, 17.7% 증가하였으며, 말기 배합사료 생산량도 전년 동월 대비 6.1% 증가하였다. 반면 중기 배합사료는 12.4% 감소하였다.
- 산란 말기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, 7월 산란 성계(노계) 도태가 전년보다 68.1% 증가하여 성계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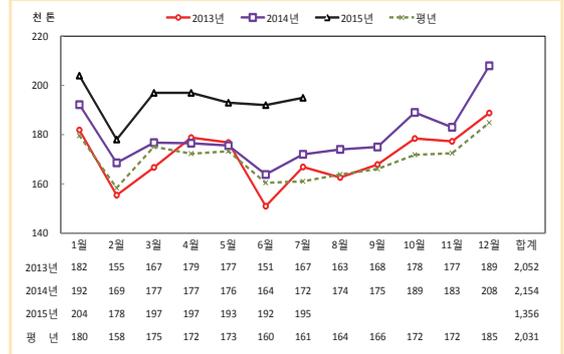
### 9~11월 전년 대비 계란 생산량 증가 전망

- 표본농가 조사 결과 9~11월 성계(노계) 도태의향은 전년 동기 대비 10.0% 증가하였으며, 입추의향도 전년 동기 대비 19.2% 증가하였다.
- 표본농가 8월 평균 산란율은 전년 동월 대비 2.7% 증가하였다.
- 성계(노계) 비중 감소, 계란 생산가담 신계군 증가와 생산성 회복으로 인해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7월(15일) 이후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 가 해제되었으나, 겨울철 HPAI 발생 상황에 따라 계란 생산과 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또한, 일부 지역에서 가금티푸스, MS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계란 생산량 증가폭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
### 가정 내 평균 계란 구매액 전년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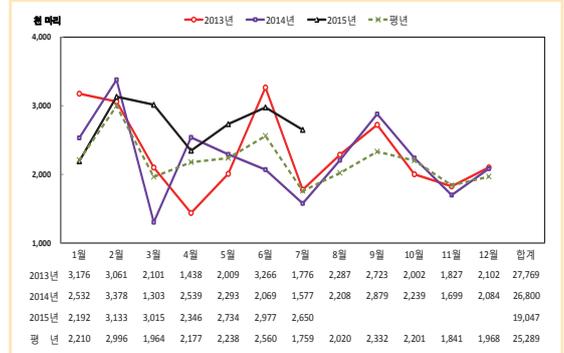
- '15년 상반기 계란 평균 구매량은 월평균 41.4개로 전년 대비 2.9% 증가하였다. 평균 구매가격은 전년보다 0.5% 하락한 195원/개였다.
- 9~11월 계란 수요는 추석과 개학에 따른 급식 수요 이외에 증가 요인이 없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###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동향



자료:농림축산식품부

### 산란 성계(노계) 도태 동향



자료:농림축산검역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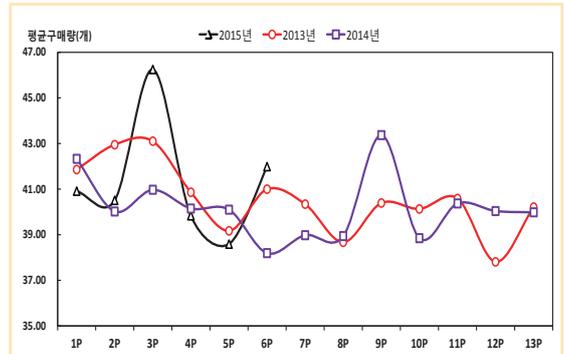
### 표본농가 입추의향, 도태의향 증감률

단위: %

구분	6월~8월	9월~11월
입추의향	16.9	19.2
도태의향	7.2	10.0

자료: 농업관측센터

### 계란 구매 추이



주: 1p는 4주를 의미함.

자료: Kantar Worldpanel Korea

# 9~11월 계란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## 계란 가격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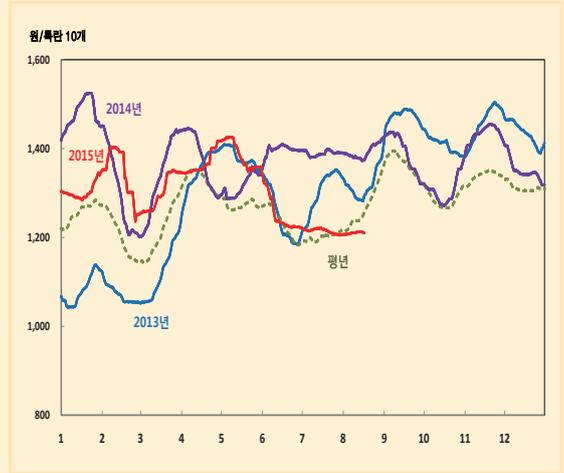
### 8월 계란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

- 8월(24일 까지)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13.2% 하락(전월 대비 0.7% 하락)한 1,209원(특란 10개)이었다.

### 9~11월 계란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9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.7% 하락한 1,250~1,350원(특란 10개)으로 전망된다.
- 10~11월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평균 8.5% 하락한 1,150~1,350원으로 전망된다.
- 과도한 병아리 입식 경쟁 및 농가의 시설 확장이 지속되어 계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.

### 계란 산지가격 동향



자료: 농협중앙회(5일 이동평균가격)

경제 주렁에 따른 성계 도태를 통해 난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. 더불어 겨울철 HPAI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.

## 축산관측(산란계) 다음호 예고 (예정일자: 2015. 11. 25)

- 축 중: 산란계
  - 내 용: 사육 동향과 전망, 가격 동향과 전망, 배합사료 생산동향
- 이 『축산관측보』는 농업관련기관·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『축산관측보』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【질의응답】을 선택한 후 【글쓰기】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연구원 홈페이지 【KREI 회원】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보를 전자우편(e-mail)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홈페이지 ☞ <http://www.krei.re.kr> ☎ 042) 826-9803 FAX: 042) 826-9804

<http://www.mafra.go.kr> ☎ 044) 201-2217 FAX: 044) 868-3965

담당자: 우병준(축산관측실장), 이윤경(산란계, 오리), 이형우(한육우), 김형진(육계), 한봉희(돼지), 정세미(젓소), 황수진(문서교정)

이 「축산관측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·분석한 후, 농업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